

10th 빛고을시민문화관... '세계음악여행' 신설 풍성한 공연

지난 2010년 문을 연 빛고을시민문화관은 그동안 다양한 공연 등 예술의 향연으로 광주시민들에게 감동을 전했고 일상을 풍요롭게 해주었다. 올해는 개관 10주년을 맞아 더욱 풍성하고 다채로운 공연과 깊이 있는 문화 컨텐츠로 시민들과 만날 예정이다.

광주문화재단은 10일 낮 광주시 동구의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 10년간의 성과와 올해 선보일 공연을 소개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은 개관 초기 대관행사 위주로 운영했다. 이후 2011년 광주문화재단이 위탁해 관리하게 되면서 전문공연장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나섰다. 제일 처음 시작한 기획공연은 목요콘서트다. 목요콘서트는 2018년 월요콘서트로 바뀌어 진행하고 있고 열린소극장도 같은해 시작했다. 지난해에는 럭셔리콘서트를 새롭게 기획해 관객과 만나는 등 기획공연을 늘려가고 있다.

빛고을시민문화관이 올해 준비한 기획공연은 ▲우수공연조정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 (4회) ▲8월의 라틴음악페스티벌(5회) ▲월요콘서트(20회) ▲빛고을 럭셔리콘서트(7회) ▲열린 소극장(8회) ▲삭은스크린(6회) ▲공연장 상주단체(11회) 공연 등으로 총 61회에 걸쳐 열린다.

광주문화재단, 10년 성과·일정 공개

라틴음악 페스티벌 등 총 61회 무대 마련

19일, 국립오페라단 '사랑의묘약' 무대에

"기획공연 늘려 전문공연장 확립 노력"

특히 개관 10주년을 맞아 준비한 기획공연프로그램 'DJ와 함께 떠나는 한여름의 세계 음악여행'이 열려 눈길을 끈다. 공연은 오는 8월 10일부터 14일까지 5일 동안 오후 7시 30분 빛고을시민문화관에서 펼쳐진다.

이번 프로그램은 라틴음악을 시작으로 유럽, 미국, 아시아 등 전세계의 음악을 조명하는 공연으로 콘텐츠화해 매년 여름 시민이 함께 즐기는 음악페스티벌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장용석 문화토리 이사가 기획을 맡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스타 디스크자키 문형식이 DJ로 출연한다. 또 탱고 바이올리니스트 김아람, 반도내온 연주자 고상지, 소리꾼 김윤희 등이 출



남

연해 관객들에게 잊지 못할 여름밤을 선사할 예정이다.

현대의 살사를 이루는 즐긴인 쿠반살사, 푸에르토리코 살사 등 다양한 살사 스타일을 소개하며 과거와 현재를 아우르는 다양한 탱고 음악을 들려주고 쿠바, 멕시코, 푸에르토리코, 미국 등의 다양한 라틴비트로 선보인다.

우수공연조정기획사업 '문예회관과 함께 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간'에 선정된 4개 작품 중 첫 번째 무대는 국립오페라단의 콘서트 오페라 '사랑의 묘약' (19일 오후 7시 30분)이다. 도니제티의 오페라 중 가장 아름다운 선율을 자랑하는 작품으로 아디나를 짝사랑하는 순수하고 어수룩한 총각 네도리노의 이야기를 그렸으며 관객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한 글자막을 준비했다.

이와 함께 애니메이션 크루의 '춤추는 미술관' (8월 27일), 주식회사 이엘플러스의 뮤지컬 '루나틱' (9월 10일), 메타댄스 프로젝트의 '카르미나 부리나' (10월 29일) 등도 열린다.

지난 5월부터 진행하고 있는 럭셔리콘서트는 강연과 토론, 음악 공연을 결합, 시민에게 보다 친숙하게 다가서는 인문학 대중강연이다. 장영민 이화여대 교수, 홍신자 현대무용가, 승지나 광신대 교수 등이 관객과 만났고 오는 18일에는 최유준 전남대교수가 강연자로 나선다. 이어 아시안 발레단 김유미 대표, 김희정 교수,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조은아 예술감독 등의 강연이 준비되었다.

매주 월요일 밤에는 빛고을아트스페이스에서 베토벤과 모차르트 음악을 즐길 수 있는 '월요콘서트'가 열리고 있다. 오는 11월 16일까지 진행되며 8월에는 공연이 없다. 6-7월에는 '베토벤 나빌레라', '브람스 인 베토벤' 등을 주제로 공연이 열리며 하반기는 모차르트를 조망하는 공연이 열린다.

매달 마지막주 수요일에는 '열린 소극장' 공연이 열리며 'SOOF', 'SR콘서트', '비담', '영택스', '양리머스', 'JS뮤지션스그룹' 등이 출연한다.

이밖에도 극단 푸른연극마을과 비상무용단의 무대도 만날 수 있으며 '기술 입은 문화예술교육(청소년들의 지구수호프로젝트)',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예술배우터) 등도 진행된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독립영화 신작전'

12일 '사회생활' 상영...감독과 대화



광주독립영화관은 2020 6번째 기획전으로 '독립영화 신작전'을 열고 '사회생활'을 상영한다. 12일 오후 7시30분 광주독립영화관.

영화는 이시대 감독의 작품으로 팀장의 지시로 좌천된 여직원에게 퇴사를 종용하는 현제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펼쳐진다. 야근 중 우연히 여직원에게 도움을 받게 된 후로 괴롭힘을 멈춘다. 현제는 그녀가 불미스러운 일에 얽혀 있음을 알게 되지만 외면해 버린다.

작품은 2019 전주국제영화제에 초청됐으며 제1회 평창국제영화제 심사위원상, 제 19회 전북독립영화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영화 상영 후에는 조대영 광주독립영화관 프로그래머의 진행으로 이 감독과 대화 시간이 열린다. 문의 062-222-1895.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그들 '코탄'

마음으로 바라본 풍경의 세계

전시장에 걸린 풍경화들은 조금은 낯설다. 바다와 산, 나무와 꽃 등 풍경화의 소재가 되는 자연의 모습이 확연히 드러나지는 않는 작품들이다. 다채로운 색감과 자유로운 붓질은 단순한 '풍경' 너머 저편을 생각하게 한다. 자연에서 차용한 이미지를 자신만의 시각으로 재해석하고, 풀어진 '상상력의 재구성물'이다.

판화와 회화 작업의 경계를 두지 않고 재료와 기법 실험을 하며 다양한 작업을 진행중인 김익모 작가가 오는 18일까지 예술공간 집에서 개인전을 갖는다.

'抽象 풍경 - 形像 너머의 세계'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서 주로 선보이는 작품은 제목처럼 '추상 풍경'이다. 그가 화폭에 담아낸 풍경은 전라도의 산이다. 판화 작업 때나 회화 작업 때나 늘 자연에 천착했던 그는 '근거 없는' 추상보다는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소재로 자신이 밟고 있는 땅을

김익모 '抽象 풍경 - 形像 너머의 세계' 전...18일까지 예술공간집

택했다. 이번 전시작에서는 화순 세랑지의 풍경이나 산밭의 소박한 마을, 꽃과 나무를 계절마다 수없이 채집한 후 자신의 감정을 담아 자유롭게 풀어내며 새로운 화면을 보여준다. 그는 자연의 풍광을 그대로 표현해내는 데서 벗어나 숲의 색, 바람 소리, 공기의 무게, 아련한 물색 등을 담아내려 했다.

추상풍경에 사실감을 부여하는 건 적정한 농담과 결로 '민감하게' 선택한 색감들이다. 작가는 물을 바른 상태와 건조한 상태가 확연히 다른 아크릴 물감의 특성을 고민하기도 하고, 모래 느낌을 주기 위해 사용한 젤스톤 작업을 통해 독특한 화면을 만들어내기도 했다. 100호 대작 두 점을 제외하고는 전시작들 대부분은 8호~15호 크기의 작품이다.

김 작가는 이번에 나온 전시작들이 '완성작이면서 일종의 드

로잉'이라고 말한다. 최근 200호 크기의 캔버스 40개를 들여 놓은 그는 "화면이 커질수록 힘든 게 추상작업인데 이번에 밀도감 있는 작은 화면에 다양한 색감과 구도 실험을 하며 어느 정도 해답을 얻어 앞으로 큰 캔버스에 다양한 작업을 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 작가는 조선대학교 미술대학과 동 대학원 미술과를 졸업했으며 뉴욕주립대학교 연구교수를 역임했다. 싱가포르 아트 페어, 모스크바비엔날레 특별전, 이스탄불 코리아 아트스 등 국내외의 굵직한 전시들에 참여했으며 현대작가에비교회, 한국현대판화가협회 회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휴무일 없음. 문의 062-233-3342.

/김미은 기자 mekim@kwangju.co.kr



'Abstract Landscape 2021'

SINCE 1982 각국 보청기 전문 A/S센터 상표등록 제2549335호

“인터넷 검색창에 **국제보청기** 를 보세요”

국제보청기

- 필요한 소리만 똑똑히 들립니다.
- 작은 사이즈로 착용시 거부감이 없습니다.
- 정직한 우수상품 가격부담이 없습니다.

본점 서석동 남동성당 옆 062) 227-9940
062) 227-9970

서울점 종로 5가역 1층 02) 765-9940

순천점 중앙시장 앞 061) 752-9940

벤들리관광호텔

“각종 연회 행사”는 **벤들리 관광호텔과 함께!!**

각종 “세미나, 가족모임(피로연, 칠순, 팔순 등)”을 최고의 서비스로 모십니다. 최고의 맛과 최상의 서비스로 아름다운 추억을 선사해 드리겠습니다.

대연회장(180명), 소연회장(30명), 스카이라운지(80명) 예약 운영

승무원지정숙소 **KBO LEAGUE** 승무원지정숙소 **KOREAN AIR** 승무원지정숙소 **아시아나항공 t'way**

예약문의 **062)236-5881~2**
찾아오시는 길 : 광주광역시 동구 서석로 10번길 5 (볼로동)